근대문학 흔적 따라 길어 올린 '서울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서울 이야기

김남일 지음

작가 김남일은 문학을 통해 아시아의 근대를 읽는 데 주력해왔다.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은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파생됐는데 그가 이번에 근대문학의 '장소들'을 모티브로 하나의 책을 발간했다.

김남일 소설가가 펴낸 '서울 이야기'는 근대문학의 흔적을 따라 길어 올린 서울 이야기다. 사실 서울은 많은 이들에게 관심의 지역이다. 특히 근대는 기성세대들이 학창 시절 문학시간 등을 통해 배운 터라 여느 때보다 익숙한 시기다.

저자가 서울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는 '그다지 마음에 드는 서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서다. "호암 문일평이나 조풍연, 이규태 같은 이들의 노작(勞作)에 문학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더라면 하는 게" 작가가 가진 아쉬움이었다.

지금까지 저자는 '한국 근대문학 기행'이라는 기획으로 '평안도 이야기' 등을 비롯해 아시아 문학과 신화를 바탕으로 '어제 그곳 오늘 여기', '백 개의 아시아' 등을 펴냈다. 현재 동료 작가들과 소설 모임 '아시아의 근대를 읽는 시간'을 꾸려가고 있다.

20세기 초 서울이 경성으로 바뀌기 전의 명칭은 한성이었다. 일반적으로 불리는 한양은 세간에서 부르던 속명이었고 한성이 공식 명칭이었다. 당시 수장은 판윤이었다. 한성부는 동서남북의 4서로 나뉘어 있었으며 서 밑에는 방이 있고, 그 아래에는 통(統), 그리고 밑에는 호가 있었다.

그러나 책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는 '정', '정목', '통'(通)과 같은 글자를 지닌 지명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황토마루는 광화문통으로, 동현 혹은 구리개는 황금정이 됐다. 이광수는 젊은 시절 예전에 진고개로 불리던 곳이 "지금에는 본정이라는 문자도 알 수 없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목청을 높였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온다.

이해조의 소설 '구마검'(1908)은 당대 계몽 소설이다. 작품은 당시 북촌에서 때 아닌 바람이 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대안동(현 안국동) 네거리 아래쪽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중부 다방골은 장안 한복판에 있어 자래로 부자 많이 살기로 유명한 곳이라. 집집마다 바깥대문은 개구멍만 하여 남산골 딸각샌님의 집 같아도 중대문 안을 썩 들어서면 고루 거각에 분벽사창이 조요하니, 이는 북촌 토호 재상에게 재물을 빼앗길까 엄살 겸 흉 부리는 계교러라."

김남일 작가는 이 장면만으로도 당대 서울 인문지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구마검'이 고루한 형식의 신소설이지만 구한말 서울의 풍습과 언어를 보전해준 공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북촌 출신인 유진오는 '서유견문록'으로 유명한 유길준과 같은 집안이다. 그가 쓴 '민요'라는 소설에는 서울내기의 향수가 잘 나타나 있다. 소설에서 북촌은 낡은 것과 새것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유진오는 김 판서네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김사량의 중편 '낙조' 또한 한일합방의 주역 가운데 하나이자 북촌 권문세가인 윤대감 집안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집안은 늘 고요하지만 지나간 시절을 못 잊는 윤 남작의 부와 권세에 빌붙어 사는 대감들이 등장한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휩쓸던 시기였다. 당시 서울은 계급 투쟁의 현장이었다. 김 작가에 따르면 "일본 자본의 침투로 조선에서도 임금 노동자가 점차 증가했지만 조선인 노동자들은 대개 하위직에 종사했다"고 한다. 1931년 조선인 실업률이 15%였는데, 이는 조선 내 일본인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전영택의 '화수분'은 끔찍스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집주인인 나와 행랑에 사는 화수분의 처지는 극과 극. 호구지책이 어려워지자 딸 하나를 팔아버리는 화수분의 처지는 오늘의 관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1904년 남대문 쪽 거리 풍경. 초기 형태의 전찻길 위를 우마차가 한가롭게 지나고 있다. 〈학고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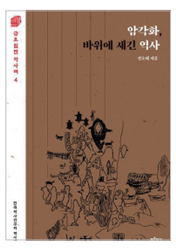
한편 저자는 "역사책에 남은 굵은 고딕체 사건들 사이로 빠져나간 장삼이사 갑남을녀들이 무수한 삶과 편리들이 그들의 펜 끝을 통해 훌륭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감개에 젖기도 했다"며 "그들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학고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암각화, 바위에 새긴 역사

전호태 지음



울산 반구대 바위에 맹수들을 새긴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마도 육식동물의 힘과 날카로움에 외경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사냥의 대상이 아닌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잡이가 선사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암각화를 통해 아주 오래 전 선조들의 삶이 어떠했을 지를 상상해볼 수 있다.

'글바위'와 '그림바위'라고 할 수 있는 암각문화 암각화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한국암각화 학회장을 역임한 전호태 울산대학교 교수가 펴낸 '암각화, 바위에 새긴 역사'는 바위그림에 관한 이야기다.

이번 책은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역사 대중화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네 번째 책이다. 이밖에 '시간이 놓친 역사 공간으로 읽다', '한문이 말하지 못한 한국사' 등 모두 5권이 발간됐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37곳에서 암각화가 발견됐다. 울산 반구대를 비롯해 남해 양아리, 포항 인비리, 포항 칠포리, 여수 오림동, 남원 대곡리, 제주 금성리, 나주 운곡동, 고령 안화리 등 전국 곳곳에 다수가 분포한다.

책은 '암각화 유적 답사 중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우리나라 암각화 유적을 소개한다. 고대인들이 왜 암각화를 그렸고 고래바위와 글바위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하나하나 그 암각화에 새겨진 글과 그림을 상상력을 가미해 해석하는 일은 그 자체로 흥미를 더해준다.

한편 저자는 "바위그림으로 통칭되는 암각화 연구가 국내에서 의미 있는 연구 분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한다.

〈푸른역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꿀벌의 예언 1, 2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2053년, 겨울임에도 지구 온난화가 극심해져 기온은 43도가 넘고 전 세계 인구수는 150억 명에 달하는 충격적인 모습이다. 꿀벌이 사라지면서 식량이 부족해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인간들은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까지 동원해 세계 대전을 벌이고 있다.

멸종 위기를 맞은 2053년 지구를 보고 온 주인공 르네. 미래를 구할 힘은 현재의 바로 이 순간에 있음을 깨닫고,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적힌 예언서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을 찾아 1000년 전 전생의 자신을 찾아 떠나는데…

천재적 이야기꾼으로 진화를 거듭해 온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한층 확장된 스케일의 색다른 재미를 더한 소설 '꿀벌의 예언'을 들고 돌아왔다. '개미'를 통해 한국 독자들을 만난 지 30년이 되는 특별한 해에 펴낸 신작이다.

작가는 소설에서 '꿀벌'을 키워드 삼아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한다. '미래를 구할 힘은 현재'라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꿀벌의 집단 실종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르네 톨레다노는 작가의 전작 '기억'에서 인류 역사를 되짚고 자신의 전생을 만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탐색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로 시선을 돌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책 표지에도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스마트폰에서 'ARTIVIVE' 앱을 통해 표지를 촬영하면 표지의 이미지가 움직이며 모션 그래픽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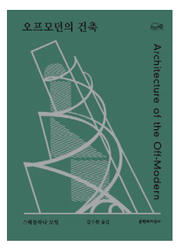
한편 4년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강연회와 독자와의 여행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열린책들·각 권 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오프모던의 건축

스베틀라나 보임 지음, 김수환 옮김



근대 지성사를 성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안적 계보학'은 존재할까? 우리가 행해온 이론적 탐구들마저 주류역사의 뒤안을 훑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발상은 흥미롭다. 모더니티의 정체를 탐구하는데 있어 '네오', '트랜스' 따위의 접두어마저도 지성사의 '다음(post-)'을 상정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탈근대의 사유를 마련해줄 수 있을까.

이번에 '오프모던의 건축'이 문학과지성사 채석장 시리즈로 출간됐다. 이 시리즈는 논쟁적 주장을 펼치는 정치, 사회, 예술 에세이, 작가들의 편지 등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저자인 스베틀라나 보임은 성찰의 해답으로 '오프(off) 모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오프 모던이란 저자가 만들어낸 신조어로 '존재한 적 없지만 존재할 수 있을 모더니티의 추론적 역사를 다시쓰기 위한 개념'이다. 책은 러시아 아방가르드의 아이콘 '타틀린의 탑'의 예시를 통해 전위적 근대성들을 살펴본다. 종이건축의 미완성 모델로 평가받는 타틀린의 기념탑은 '유토피아적 비계'로도 비유된다. 모형으로만 만들어진 바 있는 탑이 가진 정치성 등이 오프모던의 초석이 된다고 밝힌다. 책은 이 상상들을 중심으로 근대사의 '유령적 존재'들을 탐구한다.

모더니티를 측면적으로 성찰하려는 시도는 역사 속에서 다채로웠다. 저자 또한 키치, 노스탤지어, 낯설게 하기, 폐허 등의 개념을 통해 근대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왔다. 이외에도 중심적 해석을 빗겨 나가는 이론들은 다양하게 등장해왔지만, 책은 '측면적 잠재성'에 대한 발굴은 미진했다는 명제를 정면 겨냥한다. '오프 모던'의 개념이 파편적 역사해석의 대안적 잠재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